

연중 제 14주일 2007년 7월 8일 (다해)

강론 ...

“아, 김대건 신부님!”



윤양호 신부
(사무처장)

“한목숨 내어던진 신앙의 용사들이 끝없는 영광속에 하늘에 살아있다.

피꽃을 몸에피워 천당에 올랐어라,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어라.”

순교선열들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그렇게

사셨고, 죽음을 넘는 사랑과 신앙으로 한목숨 바쳤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들 속에서도 순교의 삶과 길을 사시던 신앙의 선조(先祖)들은 김대건 신부님의 삶, 영웅적인 순교의 소식에도 슬픔을 넘는 신앙으로 더욱 굳건해 집니다. 그들은 끝내 생명까지 혼연히 바치며 땅의 삶을 버리면서 하늘의 삶을 위해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과 신앙인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순교영성(殉敎靈性)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苦難)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서,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전(傳)하며 기도해가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삶의 길 위에서 겪고 만나는 힘듦, 고통, 노고 속에서도...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세상의 세력, 고통, 박해, 죽음도 자신들의 사랑을 갈리놓을 수는 없다’ 하십니다. 아, 이 땅에 믿음의 횃불 되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빛으로 다음과 같이 헤아려 봅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순교영성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많고

가련한 삶에도 순교 선열(先烈)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삶과 목숨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섭리이십니다. 순교 선현(先賢)들이 한목숨 드린 하느님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세상 삶의 시련에서도 믿음, 전교, 기도의 길에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순교영성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옥중 편지에서 몇 말씀 을 듣습니다.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견기까지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爲主) 광영(光榮)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德功)을 세울 때니,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라.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 김 대건의 옥중서신, 제 25신에서)

숲머리 생각



오늘, 여기 모인 이들 중에 어떤 이의 진실된 기도가 저 빵을 성스럽게 할 것이고 그로인해 제가 성스러워질 것입니다.
문정설(베드로)

위로 속의 교만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그의 지혜에는 다른 면들이 감추어져 있다네. 자네가 죄를 잊어버린 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욘11,6)”

욘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위로하려 했던 것인데 욘이 수궁을 하지 않자 논쟁이 된 것이다. 고통을 당하는 욘에 비해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유리하다. 상황은 욘의



처지를 두고 일어났다. 문제는 고통이 하느님께 대한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다.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욘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벌을 받을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죄가 없는 벌은 없다. 재앙과 고통이 하느님께서 주신 벌이라면 벌받는 이에게 당연히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여도 자신이 모를 뿐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 사람은 항변해 보지만 인고의 시간은 길기만 하다. 고통이 긴 것은 이유가 있다. 무력감과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과 함께 무릎을 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평정을 찾는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친구 소바르가 충고하였다. “그의 지혜에는 다른 면들이 감추어져 있다네. 자네가 죄를 잊어버린 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느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는 없으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는 없

다.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달라 사람의 소견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서 올바르게 다고만 한다.

모두가 어두움이 고 어리석음이다.

다만 소바르의 충고에는 자신만은 제외시키는 독선적인 자가당착이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고 충고할 수 있으나 그 안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같은 처지이다. 죄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죄 없이 고통을 받든지 위로하는 이는 죄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는데 사람이 더 보탬 필요는 없다. 그것은 또 한번의 단죄가 될 뿐이다.

어두움의 심연이 깊듯 하늘의 신비도 높기만 하다. 하느님의 지혜는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 앞에 머리숙일 지엄한 광채일 뿐이다. 높은 깨우침이라도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되기 쉬우니 조심할 일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당신의 사랑을 주십시오



4월 어느 날, 다른 사람
들보다는 조금 이르게 하
우스 속에서 자란 고추모
를 아기 다루듯 흠으로 다
독여 주며 받고랑에
옮겨 심었다. 너무 일
찍 심어서 행여 밤새 서리

라도 내리면 어찌나 하고 몇 밤을 받고랑에서 서성거렸
는데,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해 한낮의 열기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고추모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다
행히도 하늘에서 단비를 주시니 숙인 고개를 쳐들고
둘레둘레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뿌리를 내리고 열매
를 맺을 준비를 한다.

저 높은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 되어 현실의 어려
움을 각고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이 사랑 받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면, 지금은 각
자의 몫을 훌륭히 해 내는 착한 형제들이 되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을 고추모를 심고 가꾸면서 하게 된다.

교도소의 수용자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다. 무의탁 수용자들에게 주는 한
달 용돈 만원, 특별히 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의 도움, 출소일을 앞둔 형제들에게 주는 교통비와 격
려의 말 몇 마디. 한 달에 한번 마주 앉아 성서공부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힘든 수용생활을 견디어 내기를 바
랄뿐이다.

단절된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
님의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느끼게 해 주

는 일도 보람된 것이리라.
미사는 매주 수요일 교정사
목 장상원 신부님의 애정
어린 강론과 남성 수용자들
로 구성된 성가대의 우렁찬
찬미의 노래로 시작이 된
다. 올겐과 기타의 선율로
부르는 할렐루야송은 미사

에 참석한 수용자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울
려준다. 봉사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만 보일뿐 감춰진 죄는 보이지 않는다. 높은 담
장 안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선한 눈을 가진 두려
움과 외로움에 젖어 있는 형제로 보일 뿐이다. 우리 모
두는 하느님 앞에 죄인인 것을, 죄의 무게가 크고 작을
뿐. 우리는 하느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기에 그들 수용자들에게도 사랑과 용기를 주고 관심
안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들에게는 놀
라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잘 자라주던 고추모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버려
두면 벌레들에 침식되어 결실을 보기 어렵고 나중에는
죽고 만다. 수용자들에게 두려운 일은 이웃에게서 잊혀
져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일 것이다. 그들은 바깥세상의
공기를 실어다 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그리워
한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용자들의 어버이와 형제가 되어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문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물 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 모두의 가슴
에 퍼 올리게 하소서.”



김영숙(소화테레사)
교정사목 봉사자

입당송 시편 48(47),10-11 참조

주 하느님, 저희가 주님 궁전에서 주님의 자애를 생각
하나이다. 하느님, 주님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소
리,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이 의
로움으로 가득하나이다.

제1독서 이사 66,10-14c

회답송 시편 66(65),1-3c, 4-5,6-7,16과 20(© 1)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2독서 갈라 6,14-18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
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1-12,17-20(또는 10,1-9)

영성체송 시편 34(33),9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
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이수자 파견식



어르신 성경공부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전문 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11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중앙 성당에서 열렸던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이 지난 6월 27일 마지막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 통신 성서 교육원이 실시한 교육에는 교구의 각 본당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이날 5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 과정은

봉사자의 자세, 노인 심리, 성경 가르침, 교안 발표, 레크리에이션 지도, 특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원장 이레티치가 수녀는 "수강생들이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 매 주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보람되고 기뻐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날 특강과 파견미사를 주례한 김광태 사목국장신부는 강의를 통해 "노인이 교회의 미래다"라며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교회도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폭 넓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분들이 공동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앞으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전에 섬기면서 기쁨과 희망을 전해 주는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신현숙 기자

● 염태성·박현웅 신부 군종 장교 임관식

지난 6월 29일(금) 오후 2시에 3사관학교에서는 전주 교구에서 파견된 염태성(사도요한)신부와 박현웅(미카엘)신부를 비롯하여 총 63명의 군종장교 임관식이 있었다.

이중 14명이 천주교 사제이고 육군에 11명, 공군에 2명, 해군에 1명이 배치되었다.

이날 염태성신부는 "유격훈련을 비롯하여 11주간의 고된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홀가분하지만 군종교



제 주 관 광 안 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호텔·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H·P 010-4566-6476

가톨릭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

가격 :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 7월 28일~8월 25일까지
대상 : 초,중,고생
주최 : EDUCARE, MARK 신부님
문의 : 은이삭(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

17년 역사 수맥들침대

- 공장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뽕주문 환영, 케이크 할인판에)

천사의 양식

효자동 하이마트·광진목화아트 맞은편
김병각(대건 안드레이) 김현호(베르나르)
문의 : 255-1004, 016-627-9966

30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학생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초·중생 : 7월21일~8월19일
(3주, 4주) 427만원~
대학생 : 6월24일~8월12일(7주) 625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스튜디오·스페이스

- 하이마크 효자점 사거리 -
야외·웨딩 사진
여권·증명 10분 완성
안순덕(안젤라)
문의 : 225-3032

국내외 여행 상담

교우님들의 여행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문의 : 232-9200, 9300
대표 : 박요안(요한) 016-622-8654
(유)국민여행사
저희 국민여행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063)275-5700
FAX. (063)275-5760



구에서 처음으로 활동하게 되는 새로운 임지에 대해 걱정스럽기도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염태성신부는 보병 50사단에, 박현웅신부는 보병 9사단에서 첫 군인사목을 하게 된다. |홍보국 정리

● **송학동 성당 사랑하오신 모친 Pr. 1,000차 회합**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의 예언자 모후 직속 사랑하오신 모친 빠레시디움(단장=박복수)이 지난 6월 29일(금) 1,000차 회합을 가졌다. 본당이 설립되던 1988년 4월에 설립되어 19년 동안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하였으며 1998년과 1999년, 두 번에 걸쳐 단원들의 분가가 있었다. 이 날 1,000차를 맞이한 전 단원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충성스런 군대로서 성모님의 순명 정신을 본받아 더욱 열심한 봉사와 자신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조은아 기재

● **신태인 성당 전가대연과 함께 미사**

지난 7월 1일(주일)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에서는 여름 농활대 전가대연과 그룹 라우다떼 청년들의 노래와 연주로 미사를 봉헌했다. 싱싱한 젊음의 청년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니 주로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시골의 본당이 생기었고 활기찬 시

간이 되었다. 농촌 봉사 활동을 펼치는 전가대연 청년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태인 지역을 선택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할 전가대연은 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청년들로 동막, 신기, 태인 등에서 논 피사리, 밭 잡초 뽑기 등 일이 있는 곳을 찾아가 돕고있다.

|이선숙 기재

● **영등동 성당 예수 성심 신심미사 봉헌**



영등동 성당(주임=박진량 신부)은 예수 성심 성일을 맞이하여 성모동산 성모상 옆에 대형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성심 신심 미사를 지난 6월 25일(월) 밤 8시에 많은 신자들과 함께 봉헌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복음 말씀처럼 이날 미사를 통해서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홍보국 정리

교구 보도기자가 없는 본당의
주요행사나 소식을 홍보국으로 보내 주시거나,
취재요청을 해주시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의산〉 한빛정형외과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9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제일차 APT옆)

삼성산 성지 2박3일 치유대피정
 일시 : 7월 13일 오후 6시~15일 오후 3시
 장소 : 삼성산 성지 대성전(무로 / 식사제공)
 미사 : 송광섭(베드로) 신부
 02-874-6346
 문의 : 박노철(모세 바울) 회장
 011-721-7808

여름 성음악 연수 안내
 일시 : 8월 20일(수) 오후 2시~23일(토) 오후 4시(3박4일)
 장소 및 숙소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성심연수원(부천시 역곡동)
 내용 : 합창지휘, 전례와 음악, 성악실기,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작곡등
 강사 : 박대중신부, 최호영신부, 홍인식수녀의 전문가, 청년및 수도자 15만원 일반 20만원
 한국세실리아 성음악협회 www.cecilikorea.com,ne.kr
 문의 02-338-8978, 010-9548-9528, 010-3740-6682

성소자들을 위한 수도생활체험학교
 일시 : 8월 3일 14시~5일 15시
 대상 : 사제성소 / 수도성소에 관심 있는 미혼남성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문의 : 019-9353-2323(선착순 20명)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캠프장, 콘도 여름 예약 안내
 1)텐트형 방갈로 : 4인용(6만원), 8인용(10만원)
 2)콘도 : 단체 15인용(15만원), 가족 6인용(9만원), 캠핑카 6인용(10만원)
 3)요나 한식뷔페 : 1식 4천5백원
 4)당일 해수욕(20인 이상) : 샤워 2천5백원
 041-934-7758
 홈페이지 : www.yona.or.kr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 / 씽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가브리엘)
 063-275-9236~7
 011-294-6471

30년 동안 전일관광과 함께 52명의 고마우신 신부님들께서 32개 나라, 98개 도시의 성지를 뜻 깊고 보람있는 순례가 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은총의 땅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며 소중한 신앙을 체험하고, 기쁨 설레는 추억을 남길 성지순례를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전일관광은 70개 나라, 22개 도시로 해외여행을 안내하며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관광(063) 288-6666 조선(안토니오)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

◎ 순교의 터전 위에 피어난 두 송이 백합화

우리교구민들의 다정한 벗 '쌍백합'이 세상을 향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지 만 4년이 지났다. '쌍백합'은 순교 선열들의 신앙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구민들이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태동되었다. 지난 2003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1년에 네 번에 걸쳐 발행되는 계간지 '쌍백합'. 순교 1번지 전주교구의 대표적인 간행물답게 순교 영성이 갈피마다 면면히 흐르며 품격 있는 소식지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소식이기엔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소식지 '쌍백합'은 우리의 가슴 안에 훈훈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다



◎ 신자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물어 나르는 비둘기

많은 교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쌍백합'의 뒤에는 이 한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편집위원들이 있다. 제 18호 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20일, 홍보국 편집실에 모인 이들을 만나 보았다. 거리가 직장인들이지만 주 1회씩 모임을 갖고 더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는 편집진들의 모습이 진지하게 느껴졌다. 심연무 편집장은 '쌍백합'의 탄생 배경을 들려주었다. 지난 2002년 겨울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님은 우리 교구의 특색을 살리는 신앙 잡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동참할 일꾼들을 모았다. 이듬해 구성원들이 모여져 초대 박종희 편집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주교님께 인사를 갔다. 주교님은 이들을 반기며 “교구 신자들의 이야기를 물어 나르는 비둘기가 되어 달라. 제호는 '쌍백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천주교 순교 역사에서 백합처럼 순결한 삶과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킨 유중철 요한, 이순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거룩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쌍백합'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다. 교구 내 각 본당의 소식지와 교구 사회복지 기관의 회보에 실린 좋은 글들을 다시 묶어 소개하는 소박한 꿈으로 시작된 '쌍백합'은 이제는 어느 잡지 못지않은 고유의 향기를 가진 소식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해 발간 3주년 기념미사에서 이병호 주교님은 “쌍백합이 매년 발간될 때마다 기적 같은 생각이 든다.”며 그 기쁨을 피력하며 격려하셨다.

◎ 새 교구청 축복식 때 교구의 역사 자료 발굴·정리한 사진전 개최

올해는 교구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새 청사가 완공되어 교구의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는 해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쌍백합'도 기념 사진 화보를 비롯하여 교구 70년사를 중심으로 여름 호를 꾸려갈 계획으로 분주하다. 지난 4월 13일, 교구 설정 70주년과 교구청 축복식을 기념해 열렸던 '교구 역사 사진전시회'는 쌍백합 편집진들의 피땀의 산물이었다. 심연무 3대 편집장과 위원들은 1783년부터의 교구 역사를 찾고 정리하며 1년 가까운 시간을 밤을 낮 삼아 일하였다. 이들은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방방곡곡

살아있는 이야기 전파



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찾고, 고증을 받아오는 수고를 겪었다. 이 자료들을 작업을 거쳐 70개의 사진으로 정리하고 압축하는 과정은 '쌍백합'이 교구 역사를 엮어나가는 소중한 잡지임을 일깨워 주었다.

◎ 다양한 취재 활동 통해 신앙의 활력 얻어

'쌍백합'은 배움, 나눔, 알림의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이 잡지만의 독특한 향기를 낸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삶의 향기' 담당자 이덕자 자매. 처음에는 후보들이 많았는데 17호까지 오다보니 한계가 온단다. 그분들을 드러내려는 게 본



의도는 아닌 데 취재를 꺼리는 분들이 있다며 독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주인공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삶의 향기에 젖어 고달픈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은퇴, 원로 사제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의 안여진 자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았던 신부님들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거리감이 사라지고 그 따뜻함에 마음이 넉넉해진단다. 또한 이 코너를 읽고 교우들이 인사를 전해 오거나 문힐 뻔 한 이야기들이 사제를 통해 교구역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 보관 될 때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 본당 자랑거리' 담당 김계숙 자매는 큰 본당이든 시골본당이든 자랑거리 없는 본당이 없더란다. 자랑거리가 없을 것 같이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본당은 유구한 세월동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자랑거리더라고. 때론 그분들을 만나 얘기를 듣다보면 신앙의 채찍질이 되기도 한단다.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편집위원이 된 총무 허남 자매. 3개월간 하느님과 씨름하다 '쌍백합'과 첫 사랑을 맺게 되었단다. '쌍백합'의 자랑으로 편집위원들 간의 단합과 신심을 손꼽는다. 편집위원들의 좋은 표양으로 자신의 삶에 그들이 큰 버팀목이 되었음을 밝힌다.

◎ 참 신앙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 되기 위해 정진

'쌍백합'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잡지이다. 편집진들에게 새 교구청 시대를 맞은 '쌍백합'의 미래 계획을 물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숨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과 또한 재미 뿐만 아니라 교구의 역사를 엮어나가는 잡지로서의 전문성도 잃지 않겠다고 한다. 보완 사항으로는 젊은층 구독자 확보를 위해 젊은 편집위원들을 영입하는 일을 꼽았다. 전문가 없이 순수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편집위원들은 매번 책이 나올 때마다 독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감사미사를 드린다. 책이 왜 빨리 안 나오느냐는 물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들의 반응에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는 편집위원들. 이들이 엮어나가는 '쌍백합'은 참 신앙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이 되어 오 늘도 그리운 독자들을 찾아간다.

취재 : 신현숙 · 오안라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중증 장애인들 재활·자립의 '보금자리'

“어떤 사람들은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을 스스로 만들거나 찾아내야 한다. 만일 가족의 한 명이 되고 싶다면, 사랑이라는,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희비를 내야 한다.”(책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중에서) 무지개 가족을 취재하기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무지개 가족을 취재하는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도 내내 이 구절이 떠올랐다. 무지개 가족, 중증장애인으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셔야 했던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알맞은 재활치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소망은 자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1984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분들이 150여 명 정도라고 하니 대단하다 싶다. 이곳을 거쳐 자립의 꿈을 이룬분들끼리 ‘청포도회’ 라는 모임을 만들어 1년에 한번 씩 정기모임도 갖고 무지개 가족에 행사가 있을 때면 함께 하고 무지개 가족을 친정처럼 생각하며 지낸다고 하니 무지개 가족이야말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닐까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온 가족이 모여 미사를 봉헌한다. 오전과 오후에는 재활운동과 여러 프로그램(한글, 미술, 작업치료, 운동, 요리, 컴퓨터 등)이 진행된다. 물리치료와 저녁식사가 끝나면 각자 취미활동으로 저녁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든다. 모든 프로그램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 같았다. 자립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우리들은 흔히 살아갈 집, 그리고 매달 일정의 생활비, 이런 것들을 떠올릴지 모른다. 그렇지만 무지개 가족에게 자립은 혼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이다. 이곳에서는 매일매일의 프로그램 말고도 자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자립관’이라는 집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자립생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는다. 각각의 개인 방에 원룸 형태의 집에서 아침과 저녁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면서 생활해 보는 것이다. 자립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다. 더더군다나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

다. 그래서일까? 가족 한사람을 자립시키는 것이 마치 딸내미 시집보내는 심정이라고 양석현 원장 신부님(세례자 요한)은 말씀하신다.

무지개 가족을 찾아 갔을 때 한창 공사 중이었다. 에너지 관리공단과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시공 중이라고 한다.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공사라고 했다. 무지개 가족의 보금자리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지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싶으니 웬지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아직 아쉬운 것들은 많다. 제일 큰 아쉬움은 활동공간이 부족한 것인데 건물 세 동이 모두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활동공간은 턱없이 협소하다. 매일 아침 봉헌하는 미사도 성당이 아닌 생활공간의 마루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활동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강당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 땅은 널찍하니 마련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을 지을만한 여력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무지개 가족은 행복하다. 중증장애인으로 살지만 자립을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하루하루를 함께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렇다. 가족,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보다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 무지개 가족이 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들이지만 혼자서 견뎌내야만 하는 육체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함께 견디며 어느 가족보다 끈끈한 정으로 묶여져 가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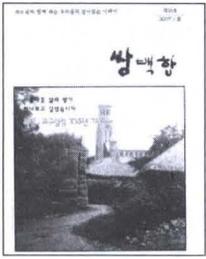
취재 : 김동욱 기자

입소대상자 및 입소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중증장애(1급)를 가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중 입소를 원하는 분은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상담 후 완주군청을 통해 입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 <http://무지개가족.net>

▶ '쌍백합' 정기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십니다 ◀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쌍백합'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백합'과 함께 참다운 삶과 신앙의 길을 걸을 정기 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십니다. '쌍백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

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사랑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쌍백합

정기구독신청

전주교구청 홍보국

문의: (063) 285-0041

후원 계좌번호: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유지재단

쌍백합에 후원해주신 박혜경 자매님 100,000원 감사합니다.

★ 쌍백합 전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홍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생활의 지혜 ◀

고유가 시대의 절전 요령

에어컨의 전력 소모를 막으려면

에어컨의 필터에 먼지가 가득 끼었는데도 청소해 주지 않는다면 공기의 흐름이 감소하여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팬을 움직이는 전력이 더 소비된다. 하루 8~10시간 사용할 경우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약 2주 만에 3%의 전력이 낭비된다. 따라서 필터를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전기를 아낀다며 에어컨을 자주 켜다 껐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에어컨은 가동하기 시작하여 설정온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한다. 그러므로 켜다 껐다를 반복하면 전력을 더욱 낭비하게 된다. 자동으로 맞춰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무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동시에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주면 에어컨만 켜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전기도 절약된다.

텔레비전은 화면·음량·리모컨 사용 주의

화면을 지나치게 밝게 하거나 음량을 높이는 것은 전력소모를 부추기는 행동이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둔 후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만 보도록 하자.

30분이상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두어야

사용하지 않은 채 켜두는 컴퓨터의 전력소모는 시간당 평균 70W이며, 이는 형광등 두 개를 켜두는 것과 같다. 3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도록 하며, 특히 회사에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때는 컴퓨터를 끄고 나가는 습관을 들이자.

◀쌍백합 5호서 발췌▶



교구장 일정

• 남미선교사(AMICAL)회의
7월16일(월) 까지 멕시코
예수고난회 피정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7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M.B.W. 콘비벤자
7월 9일(월) 오후 7시 센터

• 수녀연합회 7월 모임
7월 10일(화) 오전 9시 센터 3층 강당
주제 : 현대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
강사 :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전원신부님

• 재무평의회
7월 11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교구사제 월례목상회
7월 12일(목) 오전 10시 천호

- 8차 젊은이 성령목상회
7월 13일(금)~15일(주일) 해월리
• 전국 교육(청소년)국장 회의
7월 13일(금) 오전 11시 c.c.k
• 가정방문실 미사
7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 익산 하나회 미사
7월 15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브레시디움 간부 직책별 교육
7월 9일(월) 창인동
• 2007년도 가정성화를 위한 가족주말
8월 3일(금)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6시
주제 : 새롭게 체현하는 우리가족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족 주말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 340,000원(4인 기준)

신청마감 : 7월 20일(금)
접수 및 문의 : 전복은행
505-13-0312074(천주교 유지재단)
신청서 : 본당 사무실, 사목국 홈페이지
www.jjsamok.com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문
해 주세요.

기타

- 그룹사운드 창세기 멤버 모집
파트 : 드럼, 기타, 키보드
문의 : 010-8626-2890(임신영 토마스)
• 성가대 지휘자 및 단원교육
7월 8일(주일) 오후 2시 센터 3층
참가비 : 5천원
대상 : 성가대 지휘자 및 단원
1부-성모대축일 특송배우기
2부-올바른 발성법과 호흡법 익히기
문의 : 018-633-6037
강사 : 신윤정 · 이준호 · 최현숙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6월 30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비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서학동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여산, 고산, 신태인, 용안, 신동, 서신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순창, 우림, 무주, 월명동, 영등동,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복자, 오룡동, 시기동, 함열, 삼천동, 노송동, 팔마, 금마, 솔네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소룡동, 봉동, 주현동, 효자동, 오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용진, 연지동, 미룡동, 부송동, 지곡, 도통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화산동, 송학동, 아중, 모현동

단위 : 천원

Table with 4 columns: 구 분, 예 산, 납 부 액, 비 율. Rows include 본 당, 사 제 단,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수 익 사 업, 합 계.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6/24~30)
국민은행 전주중앙(지점)
1,000,000

예 수 회 성소모임
일시 : 7월 26일(금)~29일(주일) 16시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
주제 : 성소자 여름 피정(3박 4일)
문의 :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 고등학생 이상

가르멜 수도회 성소 피정
대상 : 교3이상 만33세이하 건강한 청년으로
가르멜 성소를 찾는 이들
일시 및 장소 : 7월 23일(월)~26일(목)
미산 가르멜 수도원
문의 : 프란치스코 수사1061-334-7415, 010-3169-7416
가르멜성소카페 :
cafedalumnet/wowcarmel/Carmelite@naver.com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함께 일할 새 식구를 찾습니다
채용분야 : 조리원
자격연령 : 40~55세 미만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해당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서류제출기간 : 7월 9일~13일
접수처 : 인보노인복지센터 284-0295

전주교구 젊은이 성령목상회
일시 : 7월 13일(금) 오후 4시
~15일(주일) 오후 5시
주제 : 참자는 사랑이 깨어나라(에페 5,14)
대상 : 모든 젊은이
장소 : 해월리 피정의 집
신청 : 010-6479-5506,
011-675-1404

젊은이 향심기도 모임
일시 : 7월 13일 저녁 7시~9시
매주(금) 7주(8월 24일 까지)
장소 : 전주 용머리 성당 성체조배실
회비 : 10,000원
문의 : 062-571-3004, 011-5705-5504
사랑의 씨튼수녀회
신청 : 7월 10일(화) / 선착순 12명

'마음밭' 가꾸기(농장체험)
일시 : 7월 21일(토)~22일(주일)
접수 : 7월 15일(주일)까지
참가비 : 1만원(선착순 20명)
장소 : 사강인애농원
(수원 성 빈센트 드블 자비의 수녀회)
대상 : 젊은이들(남, 여)
문의 : 010-8833-8107, 031-249-8107

2007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피정
대상 : 1)일반부(대학생, 직장인)
7월 13일(금) 오후 2시~15일(일) 오후 2시
2)중고등부 : 7월 20일(금) 오후 2시~22일(일) 오후 2시
장소 : 경남 신성 성심원
참가비 : 3만원(교통비 별도)
준비물 : 운동화, 여벌옷, 세면도구, 목주
접수및 문의 : (주간) 02-6364-5500
(야간) 011-9940-4638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창

- ◎ 금주 구역성경 쓰기: 지혜서 11장~14장
- ◎ 초중고 여름신앙학교를 위한 후원금 접수받습니다.(사무실)
※ 일시: 7월 27일(금)~29일(주일), 장소: 성당
- 1. 오늘: 한국성직자들의 수호자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 2. 금주 ① 소공동체 미사 11일(수) 도통아파트반/ 18일(수) 죽하아파트반
② 사도모임 13일(금) 미사 후 ③ 중고등부 주일학교 고해성사 14일(토)
- 3. 감사헌금: 신철아 5만
- 4. 감사: 램프 화분 및 꽃 봉헌 이효영
- 5. 성전신축금: 김규근 350만
- 6. 차주: 대건회, 안나회, 아가페회 모임(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159,800원 ■ 교무금: 2,149,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7월 둘째주간-이사야15장~21장
- ◎ 서베네티다 수녀님의 영명을 축하 드립니다
※ 영육간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 ◎ 초중고생 여름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 유아세례 및 첫영성체- 교중미사중
- ◎ 성당청소: 7월14일(토)- 다양1,2반
- 1. 모임 ① 반장모임- 교중미사 후 ② 성모회- 7월13일(금)10시
- 2. 금주전례: 해설-서정분, 독서-김경숙 부부, 봉헌-임덕희, 최희희
- 3. 차주전례: 해설-오승자, 독서-최승용, 함은화, 봉헌-김태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04,800원 ■ 교무금: 754,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호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운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오늘 미사 후 상반기 감사(각 단체 및 공소)
- ◎ 본당 오르겐 구입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울뜨레야-미사 후
- 2. 차주모임 ① 요셉회, 대건회, 테레사회-미사 후
② 성모회-18일(수)미사 후
- 3. 청소년: 금주-평화의 모후, 차주-가난한 이들의 모후
- 4. 차량봉사: 이우철, 김호, 차주-장경호, 유영선
■ 지난주 봉헌금: 818,600원 ■ 교무금: 1,533,000원
■ 2차헌금: 449,7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1.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7월25일(수)~29일(일) ※ 많은 기도바랍니다.
- 2. 예비신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한명씩 인도합니다.
- 3.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720,780단
- 4. 애령회원 모집: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5. 센타 신축헌금 신입액: 160,575,000원, 납입액-132,662,000원
※ 센타 신축헌금 완납자(시의, 동중): 김노순 30만, 김성래 20만
장인석 24만, 백진수 100만, 박수란 18만, 백천석 30만
이기방 30만, 이인순 12만, 강점순 100만, 김홍영 15만
김춘자 18만, 박근하 50만, 박종태 30만, 양복임 30만
- 6. 감사헌금: 김아레사 3만, 김정희 3만, 박지영 3만, 임화일 10만
■ 지난주 봉헌금: 1,804,950원 ■ 교무금: 3,862,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진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동수
인물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14일~15일 어르신캠프 관계로 미사시간변경
※ 14일(토) 4시 미사 없고, 8시 미사, 15일(일) 새벽미사 없고,
부귀는 후2:30미사
- ◎ 중,고등부: 24일~25일, 초등캠프: 27일~28일
※ 참가비: 만원, 신청: 사무실(마감-15일까지)
- 1. 금주 ① 8일(한국성직자들의 수호자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207,159단
2. 성서를 통독 합니다.
3. 병자봉성체 신청 바랍니다.
4. 금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김진태, 박춘향
5. 차량봉사: 이기를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박태규, 김양래
7. 차량봉사: 김진태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재진

1. 공소미사 ① 강덕-오늘 후7시 ② 삼길 -15일(일) 후6시
2. 초중고 여름캠프: 24일(화)~27일(금)
※ 교우님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3. 감사헌금: 이창호(프란치스코) 50만원, 전기영(아오스딩) 3만원
4. 50주년 기금: 설영옥(루시아) 50만원, 누계-68,684,131원
5. 구역모임 ① 11일(수)-임실1, 3, 6 ② 12일(목)-임실2, 5
③ 13일(금)-임실4 ④ 바로로 회: 오늘미사 후(분도관)
6. 청소년담당구역 ① 오늘-청용 ② 13일(금)-임실5
③ 15일(일)-덕치, 가리검
7. 차주전례 ① 해설-임덕자 ② 독서-노재진, 진홍영 ③ 봉헌-최명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49,200원 ■ 교무금: 947,000원
■ 2차헌금: 177,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 ◎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 1. 예비신자모집: 6월 24일~7월 22일
- 2. 첫영성체 교리 ① 신청 - 사무실 6/17(일)~7/14(토)
② 교리 - 7월24일(화)~8월 9일(목) 매주 화, 수, 목, 금
- 3. 여름신앙학교 ① 초등부 - 7월 19일(목)~20일(금)
② 중고등부 - 7월 24일(화)~26일(목)
※ 여름봉사 캠프(해월리 피정의집)
- 4. 전례봉사: 김효상, 심현천, 송정래, 김종영, 이봉희
■ 지난주 봉헌금: 672,500원 ■ 교무금: 245,000원
■ 2차헌금: 164,61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 놀이가 있는 신앙학교 ① 장소-용인 에버랜드
② 일시-7월30일(월) 06시미사후 출발
③ 대상: 초중고 40명(회비25,000원)
- ◎ 저녁미사시간변경: 후7시30~후8시
- ◎ 월, 화 평일미사 없습니다.
- ◎ 만나의집 미사: 14일(토) 후1시30분
- ◎ 봉성체: 14일(토) 오전중
- 1. 금주참성공소: 번암, 차주-수분
- 2. 차주공소미사: 상동
- 3. 금주전례: 박덕순, 차주-김원순
- 4. 금주독서: 정연수, 최선영, 차주-장양섭, 이진숙
- 5. 금주봉헌: 장재중, 최임주, 차주-이승하, 이옥주
- 6. 차량봉사: 금주 - 김철수 차주-정용서
■ 지난주 봉헌금: 454,600원 ■ 교무금: 290,000원

-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미사 후 이명서베드로회
- ② 10일(화) 전10시 구역반장모임 ③ 14일(토)~15일(일) 어르신캠프
- 2. 차주 ① 16일(월) 전10시 천반산 산행, 어은등미사
② 17일(화) 9:30분 혼인강좌, 10:30분 고해성사, 11시 혼인식
③ 20일(금) 유치원방학 ④ 21일(토) 미사 후 만나회
■ 지난주 봉헌금: 1,103,000원 ■ 교무금: 970,000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글을 쓰고, 독일의 애니메이션 작가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미약한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과 노력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야기의 내용은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알프스 여행길에서 물을 찾아 폐허가 된 마을을 헤매며 불모의 땅을 걸어가다 양치기를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 받는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음날 그는 양치기를 따라 도토리를 파종하는 것을 보러 간다. 양치기는 55세 된 '엘제아르 부피에'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 외떨어진 산에 들어와 홀로 도토리 파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주민들이 포악해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산 곳곳에 씨를 뿌리며 가꾸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제1차 세계대전 후 젊은이는 부피에가 살던 곳을 다시 찾아와 그동안 파종한 나무들이 10년생의 우람한 나무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사람의 노력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메말랐던 마을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하나 둘씩 돌아온다. 조금씩 자연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935년 부피에의 '나무심기'는 정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 부피에는 1947년 89세의 나이로 바봉에 있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죽는다. 이것이 전부이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의 단편은 어떻게 보면 A4용지 5장 길이의 정말 소박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야기가 된다.

황폐한 땅이었던 적막한 곳이 울창한 숲이 되고, 꽃들이 피고, 생명체들이 살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리게 한데는 오직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작가 장 지오노가 여행을 하다 직접 만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엮은 이 이야기는 그 내용만으로도 무척 감동적이지만, 이 이야기를 독일의 애니메이션 작가 프레데릭 백이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파스텔 톤의 애니메이션 영화 또한 깊은 느낌을 준다. 그는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에 감동을 받고 30분 분량의 그림 2만장을 5년 반 동안 혼자서 그려낸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연의 미묘한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 인상주의 기법으로 매우 특이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작업의 특성상 셀에 화공 약품을 입히는 과정에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 총 2억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니 이 영화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단편과 영화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침묵 속에 말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단조로움에 기꺼이 평생을 바친 양치기 부피에의 행복을 통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것은 권력도 부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대한 정치가도 재벌도 천재도 아니고 이름나지 않은 보통사람들, 그러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 사심 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란 것을 잔잔하게 말해주고 있다.

한편으로 <나무를 심는 사람>은 복음적 삶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묵상과 느낌을 준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또한 색다른 느낌을 주는 파스텔톤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추천한다.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인생 전체를 채울 만큼 감동과 파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